

초·중·고 학생 야외 수련활동 비상

광주·전남, 교육부 권장 우수시설 6개 뿐... 학교는 1000개 넘어 수용 한계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야외 수련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권장하는 우수 수련시설은 광주·전남 6곳에 그쳐 1000개가 넘는 지역 초·중·고 학교의 학생들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종 기관 프로그램도 대부분 인성·가족·과학·환경캠프 등이어서 학교 단위 수련활동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광주·전남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대안 해병대캠프 사고 후속 대책의 하나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일선 초·중·고교 수련활동 전수조사 지시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내려보냈다.

유의사항에는 반드시 허가·등록된 시설을 이용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인종별 기관·프로그램으

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교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에서 우수 수련시설 여부와 보험 가입, 학생안전보호 조항 명시, 재난·안전·위생사고 매뉴얼 등을 확인한 뒤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우수 수련시설과 인종 기관·프로그램을 공지했다.

문제는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총 56곳 중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6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주는 광산구·남구·북구 청소년수련관, 전남은 나주·여수·영암 청소년수련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양청소년문화센터와 목포·장흥 청소년수련관 등 3곳은 보통등급에 그쳤고, 광주 동구·서구와 구례·담

**광주·전남 56개 시설
우수 6·보통 3·미흡 5
40여 곳은 평가 안받아
한정된 프로그램에
학교단위 수련활동 불가**

양·신안 청소년수련관 등 5곳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40여 곳에 달하는 수련시설들은 규모가 작아 평가 대상이 아닌 데다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한 수련시설 대표는 "평가 주관기관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 민간단체일 뿐"이라며 "협회에 가입하면 회비를 내야하는데 평가

대상이 규모가 큰 청소년수련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한정된 수련활동 인증 기관·프로그램도 문제가 있다.

인종 프로그램은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순천시청소년수련원·여수시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자체 운영하는 과학캠프와 리더십·가족캠프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교 단위의 대규모 단체 수련활동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지시대로 한다면 광주·전남지역에서 갈만한 수련시설은 6곳에 불과하다"며 "더군다나 레프팅 등 위험성 있는 수련활동을 배제하면 인성·리더십·과학캠프 등만 남을텐데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라도 비하 '덧글' 위험수위

세계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 이후 인터넷에 넘쳐

일부 조직적 음해... 국가차원 대응시스템 마련해야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일어난 공문서 위조 사건을 놓고 인터넷에서 전라도(광주)를 비하하는 덧글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 엄중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33주년을 앞두고도 일부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전라도와 5·18을 폄하·비방하는 등 호남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라도를 무차별적으로 비하하는 세력인 영·호남의 지역감정까지 조작하고 있는 만큼 국민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29일 오후 6시 현재 광주대 광주시장이 지난 28일 정부 문서 조작에 사과한 기자회견을 다룬 일부 기사에 5500여개의 덧글이 붙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덧글은 호남을 비하하는 막말과 욕설을 담고 있다. 특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무관한 호남과 5·18 등을 폄하하는 단어인 빨갱이, 폭동, 흉어 등의 단어를 담은 덧글들이 넘쳐났다. 이미 고인이 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들도 심심찮게 목격돼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일부 덧글은 "호남은 범죄집단"이라는 등 호남사람 전체를

범죄자로 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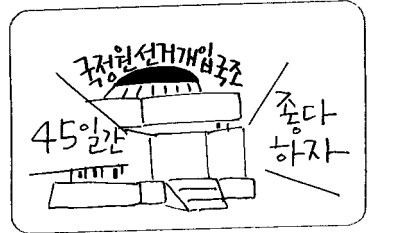
이와 관련, 일부에선 조직적으로 '음해 덧글'을 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강운대 시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5·18 왜곡대책위원회가 5·18을 왜곡한 일베 사이트 회원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한 데 대해 당시 세력들이 복수 차원에서 강 시장과 광주(전라도)를 비난하는 듯하다"면서 "덧글의 내용이나 정도가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조작하고, 호남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근거도 없이 만들어 내는 등 막말을 넘어서 저급한 욕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즘 청소년들은 뉴스 내용보다는 덧글을 즐겨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역 감정의 폐해를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지역감정의 망령이 되살아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별개로 모든 국민이 대책을 고민해 봐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포털 유휴계시물 신고센터에 상식을 벗어난 덧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박진표기자hucky@kwangju.co.kr

45일만



사우나 천정 '들벼락' 2명 부상

지난 27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목욕탕의 여성용 사우나실(약 5평) 천장에서 장식용 돌이 떨어져 사우나를 하던 문모(여·58)씨 등 2명이 머리와 다리에 돌을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문씨 등은 "사우나 천정 중앙에 원형으로 붙어 있는 돌맹이들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성추행 용의자 차량 잘못 지목 '허탕'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성추행 용의자의 차량을 잘못 지목, 경찰력 낭비에 범인까지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장동 A(여·20)씨의 원룸에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한 성추행범이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지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

○출동한 경찰은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목한 용의 차량을 한동안 뒤쫓아가 검거했으나 조사결과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허탕만 쳤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장흥 해안초소 총기 사망 "선임병 폭언 있었다" 증언

지난 25일 총기 사고(광주일보 7월 26일 6면)로 숨진 육군 사병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부대 선임병의 폭언과 욕설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제 31사단은 지난 25일 장흥군 회진면 모 해안초소에서 발생한 김모(22) 일병의 총기 사망 사고와 관련, 숨진 김 일병의 부대에서 선임병의 폭언과 욕설이 있었다는 증언을 헌병대가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헌병대는 또 숨진 김 일병의 수첩에서 '군 생활이 힘들다. 오늘 일기가 마지막인 것 같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손을 씻자" 29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에서 직원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손씻기 교육 실시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소 10마리 죽었소”

17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3월 대립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 이들이 키우는 소 10마리의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여수 해산동 공해이주대책위원회 회원 150여명은 29일 오전 여수시 화

지동 여수국가산단내 대립산업 여수공장 정문에서 '대립 폭발사고 피해 보상 요구 집회'를 열고 대립산업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3월 14일 발생한 대립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 때 공장에서 3km 떨어진 해산동 해산마을에서 키우던 소

**여수 대립산업 폭발 사고
인근주민들 피해보상 요구**

10마리가 죽었고, 폭발음으로 주민들도 놀라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은 만큼 회사측이 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 요구다.

해지·대평마을 등 자연마을 4곳에 사는 주민 400여명(169세대) 중 당시

폭발로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은 49명에 대해서는 1인당 150만원,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5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립산업 관계자는 "폭발현장과 마을이 먼 거리고 연관성이 미비한 일은 만큼 회사측이 9억원의 보상금 추가로 실시한 뒤, 주민들과 논의해 사회봉사 등의 보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시 과장급 공무원 소환조사

검찰, 공문서 위조 수사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광주시 과장급 공무원들을 소환했다.

광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29일 오후 광주시 체육진흥과 과장 유치원위원 기획총괄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보보증서가 조

작성 경위와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체육진흥과와 기획총괄팀은 지난 26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덜 끝났으며, 이후 참고인들의 진술과 비교하는 등 차근차근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인 217명 안도현 시인 검찰 기소 항의 성명

문인 217명이 안도현 시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9일 '안도현 시인의 절필을 바라보는 문인 217명의 입장'을 내고 "검찰이 안 시인의 트위터 글을 문제 삼아 무리한 기소를 하고 말았다"면서 "국가 공권력의 기소권 남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안 시인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안중근의 유목을 소장하거나 유목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인은 이날 4일 트위터를 통해 일시적 절필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입학문의 ▶ 062-605-1115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www.kwangshin.ac.kr

【 주요일정 】

1. 일반전형

- ① 원서접수 : 2013. 8. 5(월) - 8. 16(금)
- ② 전 형 일 : 2013. 8. 20(화) 오전 10:00
- ③ 합격자발표 : 2013. 8. 26(월) 오후 2:00
- ④ 등 록 기 간 : 2013. 8. 27(화) - 29(목)

▼ 대학원 과정별 모집정원 현황

대학원	과정	학과	모집정원	전공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
	석사	신 학 과(Th.M.)	○	구역, 신약, 조직, 기독교윤리, 역사, 설교예배, 선교, 목회상담, 주경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연구과(M.A.T.)	○	-
	석사	신 학 과(M.Div.)	○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상담교육

정통보수신학의 요람
59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오천경매특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